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, 변액연금 최저보증옵션 인기 지속

- 보험계리 컨설팅 회사인 milliman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미국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변액연금의 96%가 최저보증(GLB: Guaranteed Living Benefit)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최저보증 옵션을 제공하는 변액연금보험은 2004년 전체 변액연금보험에서 87%를 차지했으나 2005, 2006년 95%로 증가한 후 2008년 상반기 96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.
 - 이에 따라 최저보증 옵션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의 수도 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4년 52%에 불과했으나 2008년 상반기에는 69%에 이름.
- 변액연금 시장에서는 최저연금보증(GMIB), 최저인출보증(GMWB), 종신인출보증(GLWB), 최저적립금보증(GMAB) 등 4가지 종류의 최저보증옵션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종신인출보증의 선택률만이 크게 증가함.
 - 종신인출보증 옵션이 제공되는 변액연금에서 종신인출보증을 선택하는 보험계약자는 2004년 61%에서 2008년 상반기 93%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대부분 종신인출보증과 최저인출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종신인출보증 옵션이 인기를 끌면서 최저인출보증을 선택하는 비중은 동기간 25%에서 14%로 감소하였음.
 - 한편 위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변액연금 상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으나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하는 비중은 2005년 58%에서 2008년 상반기 37%로 오히려 감소함.
 - 최저연금보증옵션과 최저적립금보증옵션은 2004년 각각 49%, 48%였던 선택률이 2008년 상반기 각각 25%, 10%로 감소하면서 인기를 잃어감.
- 본 조사는 최저보증 변액연금을 판매하는 21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1개사의 변액연금 시장 점유율은 41%이고 이 중 13개사는 변액연금 신계약 규모 상위 20위 안에 랭크된 회사임.

(Insurance news net, 3/25)